시내버스·지하철·상수도 요금 인상 억제

광주시 재정부담 눈덩이 '전전긍긍'

올 지원금 800억 … 국비 보전 등 대책 시급

시내버스 및 지하철, 상수도요금 등 3대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광주시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이들 공공요금이 동결되면서 발생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 시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은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이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요금 차별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보전금으로 지난해 292억원을 지원했으나, 유가의 가파른 상승과 인건비 증액 등으로 인해 올해 3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며, 지하철도 지난 2007년 이후 기본요금이 1천원으로 동결되면서 올해 지원액이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상수도요금도 t당 생산가격은 616.27원인 반면 공급가격은 527.63원으로, t당 90원 정도 적자가 계속돼 지난해 124억원을 세금으로 보전했으며, 올해 보전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들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부담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광역자치단체 5곳과 함께 시내버스와 지하철요금의 노약자 등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요금 손실분을 국비로 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으나, 해당 부처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방침에 따라 당분간 이들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적어 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석유가격 폭등과 물가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도 지난 2007년 이후 이들 요금은 동결됐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세금으로 채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다만 시내버스의 경우 무료환승제 도입으로 인한 시민편익이 295억원에 달해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현재 모든 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본요금보다는 거리와 구간에 따라 탄력적인 요금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공공재원이 투자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거리를 이용하는 승객이나 장거리를 이용하는 승객이 똑같은 요금을 낸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번 기회에 버스나 지하철 요금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 진압 후 정신질환

국가유공자로 인정

대법원 판결 "부당한 공권력 동원 정신분열 원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돼 정신질환을 앓게 된 진압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18 당시 진압군이었던 김동관(51)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민주화운동 진압 등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린 것이 정신분열의 직·간접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1980년 5·18 당시 제3공수특전여단의 진압군으로 투입됐다가 전역 4개월 만인 1982년 3월 전쟁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김씨가 5·18때 광주에서 겪었던 정신적 압박이 발병 원인이며, 진압 작전 참가 이후 부대 동료들과의 갈등, 상관의 기합 등이 증세를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김씨는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6년 8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군복무 중 발병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7978〉 김종두

고 3 수험생들 고속도로 참변

담양서 차 몰다 4명 사상

고3 수험생 등 4명이 주말 나들이를 다녀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13일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20분께 담양군 봉산면 88고속도로 상행선 고서 기점 5㎞ 지점에서 H(18)군이 몰던 코란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H군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나주 모 고교 3년 K(18)양 등 여학생 2명과 다른 남학생 1명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H군 등은 이날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등을 둘러본 뒤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1년 자퇴생인 H군은 지난 7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뒤 10월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선을 바꾸다가 앞 차량과 부딪치면서 중앙분리대를 추돌했다"는 동승자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사랑의 몰래 산타 발대 1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대강당에 개설된 '2009 사랑의 몰래 산타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사랑나눔 율동을 배우고 있다. 이들은 19일 산타 발대식을 연 뒤 24일 '2009 사랑의 몰래 산타 대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종플루 크게 줄었다

광주, 확진자 673→206명 …재난본부 해체

광주시는 13일 "신종플루에 따른 국가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도 11일 해체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종플루 국가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된 지난 11월3일 확진자 수 498명, 항바이러스제 사용량 4천891명분이었으며, 지난 11월11일 그 수가 673명과 4천847명분으로 정점을 이뤘다.

그러나 그 뒤 확진자 수와 항바이러스 사용량이 하향 곡선을 그려 지난 10일에는 206명과 752명분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시는 지난 10일 현재 전체 대상자 49만6천명 중 22만9천명에게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했으며, 내년 1월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접종을 완료할 경우, 감염자 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된 11일 신종플루 예방접종과 사고수습, 방역대책 등 제반업무를 기존 신종인플루엔자대책본부(시 건강증진과, 자치구 보건소)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 소파공장 화재

공장·인근 주택 피해

지난 11일 밤 11시50분께 순천시 풍덕동 모 소파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내부(158㎡)와 인근 주택 일부가 타 3천7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경찰 아들 수갑 갖고 놀다 '덜컥'

쌍나팔

○…현직 경찰관의 아들이 아버지의 수갑을 가지고 놀다가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119 구조대원들이 지난 11일 밤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에 사는 경찰관 A씨로부터 "수갑을 풀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 A씨의 아들(14)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절단기로 잘랐다는 것.

○…A씨는 수갑의 잠금장치를 열어보려고 애를 썼으나 끝내 풀지 못했는데, 119 구조대원은 "수갑의 톱니가 뒤틀리거나 열쇠가 마모되면 열쇠를 이용해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설명.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판사가 현장검증

광주지법 순천지원, 16일 황전면 피고 부녀 집서

법원이 지난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선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준호)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3시 순천시 황전면 일대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뤄진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59)씨 부녀의 집과 청산염이 보관됐던 창고 등 사건 현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순천시 황전면에서 마을주민 4명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셨다가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 부녀는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부인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신안 80대 치매노인 논에서 숨진채 발견

사인은 저체온증

지난 11일 오후 1시50분께 신안군 임자면 한 논에서 오모(85)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오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생활하던 복지시설에서 무단 이탈했으며, 그동안 치매와 고혈압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은 13일 "오씨에 대한 시신 검안 결과 저체온증이 사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씨가 농로를 걷다 발을 헛디뎌 3m 아래 논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